

#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공동 연구개발 '맞손'

전북대, 케이셀 등과 협약 체결... 줄기세포 분야 합작법인도 설립키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전북대학교병원(원장 양종철)은 지난 18일 대학본부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인 케이셀(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양오봉 총장과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이종성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의 공동 연구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면역세포인 NK세포 및 신경줄기세포의 기초 및 임상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케이셀(주)의 셀빙김 프로그램(바이오인슈어런스 및 세포보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기초연구는 전북대 의대가, 임상연구는 전북대병원이 각각 주도한다.

향후 줄기세포 분야 합작법인도 설립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18일 대학본부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인 케이셀(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립해 지속가능한 연구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줄기세포 연구의 실질적 응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와 상용화가 가속화돼 지역을 넘어 글로벌 의료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 우수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전북대-직스텍놀로지, 산학협력 협약 체결... 대학발전기금 기증식도 함께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8일 총장실에서 인공지능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주)직스텍놀로지(공동대표 최충복·임신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대학에서 직접 배양하고자 하는 전북대학교의 노력과, 산학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직스텍놀로지의 의지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 개발 △우수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국가 과제 공동 참여 △정기적 교류 행사 개최 △전문 인력 및 교육 시설 상호 활용 등이다.

또한 대학에 차세대 디자인 플랫폼 학습 기회 무료 제공 및 청년 멘토링 운영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을 통한 대학발전기금 기증식도 진행됐다. (주)직스텍놀로지는 전북대에 교육용 설계 소프트웨어 직스캐드(ZYXCAD Professional) 라이선스 500개를 매년 3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총 1,500개로 10억 원 상당이다.

(주)직스텍놀로지는 2022년 직스캐드 런칭 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전북대학교는 지난 18일 총장실에서 인공지능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주)직스텍놀로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양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가천대, 서일대 등 국내 8개 대학과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HUST), 하노이건설대학교(CTCI)에 직스캐드 라이선스를 기증해 왔으며, 이번 전북대 기증추진액을 합산하면 누적 100억원을 달성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의 학문적 역량과 기업의 기술력을 융합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공동 연구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실습 환경이 개선되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최충복 공동대표는 "학생들이 최신 설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한 정기적인 설명회와 포럼 등의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노비스 협회 회원사인 (주)직스텍놀로지는 직스캐드와 워크스비투해 인공지능 설계 프로그램인 워크스 GIS 기반 스마트 건설 관리 플랫폼을 개발했다. 그 중 직스캐드는 IS 그룹 계열사인 티라유텍이 한국 상업 총판을 담당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펜타게이트에 기술이전

인공지능 기술 활용 불법주정차 차량번호 식별 시스템

전주비전대학교 이근상 교수(지적도목학과)가 보유한 '드론 영상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차량번호 식별 시스템' 기술을 (주)펜타게이트에 이전했다.

19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2024년 8월 (주)펜타게이트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 첨단 제조 기술 분야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술지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기술이전은 산학협력 기술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주)펜타게이트는 해당 기술을 고도화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하는 글로벌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근상 교수는 "(주)펜타게이트와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우수 논문 발표, 특허 개발,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산학협력



전북대학교 재학생 및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접수는 19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dl.jnu.ac.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신청자는 김근배 교수의 저서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을 증정할 예정이다.

## 전북대 중앙도서관, 28일 김근배 교수 초청 특별 강연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설동훈)이 김근배 교수 초청 특별 강연을 마련했다. 이번 강연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중앙도서관 1층 중도 라운지 강연장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이자 다수의 저서로 과학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온 국내 대표 과학학자다. 15년에 걸친 야카이브 작업을 바탕으로 총 6권으로 기획된 '한국 과학기술 인물열전'의

첫 성과물로 올해 5월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을 펴냈다.

이 저서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묻혀 있던 근현대 한국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그들의 삶과 자취를 추적한 책으로, 대한민국 과학의 역사를 알리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흥미진진한 우리 과학자들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는 대한민국 과학사의 중요한 순간과 인물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19일 열린 전략회의에서 "지난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교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며 수험생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길 바란다"고 주문하고 있다.

## "수험생 지원에 만전 기해달라"

서거석 교육감, 전략회의서 주문... "원활한 예산 심사 노력" 당부도

"남은 기간 수험생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길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19일 열린 전략회의에서 "지난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교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면서 "입시설명회와 진학 상담 등 수험생들이 전북교육청의 대입전형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데 이어 행안부의 기록관리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여기에 인주하지 말고 더욱 분발해 전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

육청을 이끄는 우수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주문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이번 주부터 내년 본예산 심사가 시작된다"면서 "예산 심사가 잘 이뤄져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려는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25일 '제1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대학 분관 23층 완주·우석 전망대 W-SKY 23에서 '제1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RISE! 지역 혁신을 위한 공생과 도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우석대학교가 주최하며, JB지산학협력단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LINC 3.0 사업단이 공동 주관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4개 시군, 도내 대학,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현대자동차, 두산퓨얼셀, 비나텍, 성일하이텍, 정성캐미칼, NH농협은행, 전북은행, 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 전북IT산업협회, 더드림위크 등이 참여한다.

박노준 총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RISE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RISE 사업을 통한 지역 혁신과 관련된 지·산·학·연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공적인 RISE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5일 황학당에서 IB 연구진 및 IB 관심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IBEC 교사 양성 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 전주교대, IBEC 교사 양성방안 연구 세미나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5일 황학당에서 IB 연구진 및 IB 관심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IBEC 교사 양성 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개회식 △주제 발표(IB 교사 양성 정책, IB 교사 전문성과 교사교육, 전주교대 IB 교사 양성 방안) △지정토론('전주교대 IB 교사 양성 방안'에 관한 토론) △IB PYP 운영사례 △총합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IB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다. 이에 전주교육대학교는 IB 초등교육과정(PYP)을 운영하고 자 IB교육연구센터를 신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IBEC 교사 양성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박병춘 총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IB 교사 양성 정책을 살펴보고 토론하는 기회가 됐다"며 "IB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 발전에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LINC3.0 사업단

오늘 심포지엄 공동 개최

전주대학교 LINC3.0 사업단은 20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사)한국식품산업진흥기술협의회(회장 신정규), 국립농업과학원(원장 이승돈)과 공동으로 '차세대 냉동 기술을 이용한 탄수화물 식품의 품질 혁신'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적인 소비자조사 기관인 Mintel Korea의 심현규 부장이 '글로벌 냉동식품 소비트렌드'를, CJ제일제당, 한국식품연구원 등에서 가공법의 냉동 특성, 냉동 생지의 냉·해동 방법, 냉동민두의 보관 방법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신정규 회장은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는 "K-Food의 세계적 진출을 위해 냉동 기술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냉동식품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한국식품의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CJ제일제당 등 산학연에서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이차전지 아카데미 교육 운영

Ansys FEA 이해 등 교육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6~17일 양일간 캠퍼스종합기술원에서 이차전지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교육부 첨단산업분야의 집중 재정지원과 연계해 산업계 요구 수준에 맞는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Ansys FEA 이해하기 △Ansys FEA 전처리 △Ansys mechanical APDL 제약조건 및 하중 △단계 제어/해석 계산△Ansys FEA 해석 및 분석 △결과 검증 및 편집 등 배터리 부품 구조해석에 대한 실습형 교육으로 배터리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에 참가한 졸업생은 "이번 교육이 이론뿐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응용되는 실무 관련 실습형 교육이어서 실제 산업현장에 나가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숙경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이차전지 산업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집중 중심의 현장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도내 이차전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수한 이차전지 분야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